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新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安成澤
편집국장 金貞任
발행소 :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690-756> 제주시 이라1동 산 1번지
전화 : 54-2278-9 / FAX 56-2204
인쇄 : 제민일보사

제563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6년 11월 11일 월요일

1

‘교육여건 등 전반적 우수’

현지평가단 취업률·장서확충 미흡 등 지적

우리대학교가 많은 관심 속에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평가인정제(이하 대총평) 현지방문평가에서 평가단(위원장 최영삼 고려대 교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및 사진 참조)

학교당국에 따르면 대총평 평가단은 지난 9일 오전 10시30분 우리학교 자체평가위원·연구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회관 101호실에서 가진 상호협의회의(평가결과와 총평)에서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 대학원 분야 등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이날 총평에서 △교육목적·목표의 학문적 체계성과 계열성 확보 및 이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도 △특성화 분야 선정 및 육성 노력 △장학금 수혜정도 △학생의 학습활동

△최근 국내 연구발표 실적 △부설연구소 학술활동 △사회봉사 참여정도 △교수확보율(질적·양적) △공간 확보율 △시설배치 및 환경 △재정확보 실적 등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평가단은 우리대학의 개선점으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대책 강화 △높은 자퇴율 △전문학술지 발표 및 저서 발간 수준 △교양강좌의 높은 시간강사 의존비율과 처우개선 △도서관 장서수·학술지·열람석 다소 부족 △교육매체 제작시설 미흡 △종합발전계획 재수립·점점 △대학원생 유치 방안 적극개발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장권 총장은 “이번 대총평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평가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대학 가족들에게 감사한다”면서 “공식적인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대학의 실상을 냉정히 직시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학교당국은 이번 대총평에 대비해 지난해 5월 자체종합평가 기획위원회와 연구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조직해 1년 방동한 자료수집·분석과정을 거쳐 지난 9월 자체평가보고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의 행·재정적 차등지원의 근거자료가 될 평가결과는 빠르면 연말쯤 알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기금 2억여원 용도 결정

중앙운영위, 각 학과에 3백만원씩 배정키로

중앙운영위원회(의장 안석환 축산 4)는 지난 9월19일 등록금 협상과 관련, 학교측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학생복지기금 1억원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중앙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9 양일간 열린 중앙운영위 임시 회의에서 각 학과방에 의무적으로 컴퓨터, LAN, 사물함 설치 비용 및 과학실험 학생복지기금으로 3백만원씩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운영위에 의하면 복지기금 활용과 관련 각학과 학생회로의 요구안이 각각각색인 것으로 나타났고 컴퓨터, 사물함, 프린터기, 탁자, 의자, 철관, 소파, 캐비넷 등을 주로 구입해 주기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학생측 대표로 학교당국과 면담하고 있는 한재훈(화학 4) 자 연대 회장은 이에대해 “60여개의 학과

(자치기구 포함)가 요구한 20여개의 물품들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요구하는 물품내용을 제한하고 학생복지기금을 각 학과에 균등히 돌아가도록 나누었다”고 밝혔다.

중앙운영위원회는 11일 학생복지지원금의 사용 계획안을 학교당국에 제시했으며 그 사용계획의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이에 대해 학생과의 한 담당자는 “이번 결정된 사항은 사물함 설치내용뿐이며, 최종적인물품내용은 차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과에서 제공한 학생복지지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현재 학생복지기금은 지난 1학기 등록금 협상시 학교 당국이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1억 4천4백여만원 중 미집행 금액 1억1천5백여만원을 합해 총 2억1천5백여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생과 자료에 의하면 1학기 복지지원금 중 3천2백3십만원이 학생자치기구 사무용품 구입 및 동아리방전화시설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주현기자

구분	종류	명	수량
인문대	LAN	10	38
법정대	LAN	0	1
경상대	LAN	5	15
사범대	LAN	9	24
농과대	LAN	7	0
해양대	LAN	7	52
자연대	LAN	8	74
공과대	LAN	5	78
애강간접부	LAN	5	22
중앙자치기구	LAN	4	0

<표>학생복지기금 사용계획안

내년 산업대학원 신설

법학·화학과에 박사과정 무역·중문·전기공에 석사과정 등

우리대학교는 지난 5일 8개학과 60명 정원의 산업대학원을 신설하고 일반·특수 대학원에 1백30명을 증원하는 대학원 정원조정안을 확정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역산업의 기존 기술인력의 재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산업대학원은 입학정원 60명 규모로 농업생명과학과, 해양수산학과 기계에너지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생명산업공학과, 농업경제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 8개학과를 신설한다.

일반대학원은 법학과·화학과에 박

사과정을, 무역학과·중어중문학과·전기공학과에 석사과정을 각각 신설하고 석사과정 59명, 박사과정 21명을 각각 증원했다.

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해양환경공학과를 환경공학과로 명칭 변경했다.

경영대학원은 석사과정에 경영정보학과를 신설하고 10명을 증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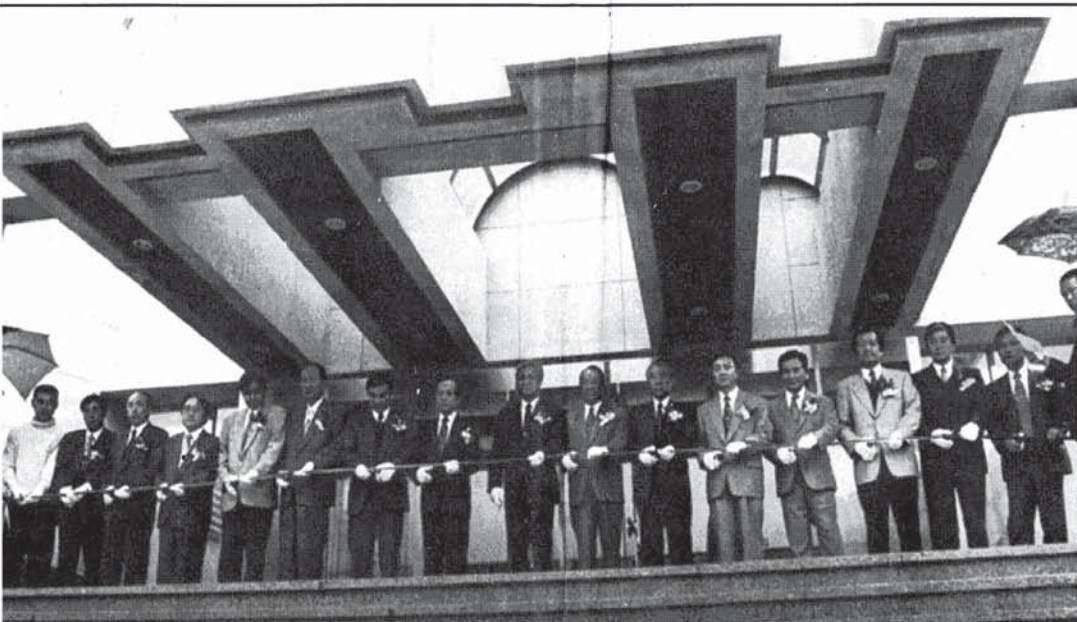
교육대학원은 음악교육·역사교육 전공을 설치하고 4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특히 한국에너지과학기술

연구소와 협동과정으로 3개 전공에 석·박사 과정이 개설된다.

일반대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과학기술에너지연구소와의 협동과정은 서류심사 및 1.2차 전형 거쳐 물리·기계·에너지전공 석사과정에 3명, 물리·기계전공 박사과정에 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대학원 정원조정으로 우리대학의 대학원수는 일반·특수 포함 기준 4개에서 5개로 늘어나고 입학정원도 올해 3백23명에서 1백90명이 더 많아진 5백 13명이다.



‘해양과학대학 3호관(C동)준공식(사진)’이 지난 5일 11시 고장권총장, 고유봉해양대학장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대 3호관 1층 현관에서 있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시공업체인 (주)삼오종합건설 임재호사장과 현장소장 김익범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기로에 놓인 교양교육...6

교양과정 편성을 보면 그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획-왜 금서인가?...8

금서조치와 해금의 반복이었던 5공화국 정부의 출판정책을 알아본다.

알림

※ 선거특집으로 인한 지면편재로 과학 이야기는 다음호로 연기합니다.
필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563호를 끝으로 2학기 신문을 종간합니다. 다음호 신문은 새해 1월호에 신년특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대학 설명회 개최

내주부터 도내 고교생 대상

우리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우리대학 소개 및 입시 정책 설명회를 마련한다.

기획담당관실(실장 강영주 식품공학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대학 설명회는 11월18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15개 인문계 고교 3학년생들과 진학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하루에 1개 고등학교씩 초청하여 공과대학 C동 세미나실에서 실시된다.

기획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오전·오후로 나뉘어 실시되는 데 오전에는 97학년도 입시내, 우리대학 입시요강 및 홍보책자 배부, 우리대학 홍보 비디오 상영 등이 있게 되고, 오후에는 중앙도서관, 외국어교육관, 전자계산소 등 학내 각종 주요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획실은 이번 설명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학의 이념과 역사 △대학편제와 학문활동 △대학생활 △대학의 동정 △미래의 제주대학교 모습 등을 담은 홍보비디오를 상영해 고교생들에게 우리대학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관련 기획담당관실의 고봉권계장은 “홍보 목표가 보다 많은 학생 유치에 있는것이니 만큼 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썼다”면서 “작년에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던 실험실 관람 등을 빼고, 도서관, 외국어 교육관 등 다른 시설을 견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대학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학생은 “대학설명회가 선생님이나 책자를 통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무엇보다 학교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희정기자

학생증 발급절차 개선 시급

손에 쥐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지난해 2학기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도서대출증과 은행카드의 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전자카드 학생증을 발급받는데 3개월 이상이나 걸려 학우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면 독자의 소리 참조)

이와 같이 학생증 발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발급절차와 업무담당자의 단일한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카드 학생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보면 △신청서 제출(학과)→△단과대 행정실서 취합 →△ 본부학생과→△농협출장소: 통장 발급 및 인적사항 전산입력 → △카드발급회사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은 통상적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소요되지만 학우들이 학생증을 받기까지는 이보다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신입생의 경우 1월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당시에 신청하여 지난 5월에야 받아 보았고 재학생인 경우는 1학기에 신청하여 2학기 개강되고 나서야 학생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생증 발급이 늦어지는데 대학 학생과의 부연전제는 “학생들이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서를 내지 않아서 수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수합된 신청서에 적힌 인적사항도

잘못 기입된 것이 꽤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데만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학생들의 책임도 있음을 지적하는가하면 농협 재대출상소 이경근 소장은 “한정된 인원으로 기존의 업무를 보면서 입력작업을 하려고 하니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11월 말이나 12월 초경에는 카드 재발급을 빠른 시일에 처리 할 수 있도록 카드 제작기를 학생과에 기증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한데 대해 미안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발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생증 발급이 늦어지는 것은 학우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행정실에서 일정 인원이 모인 후에야 농협 출장소로 보내고 있고 그 기간이 일정치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언제 보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자카드 형태의 학생증은 새로운 카드를 만들거나, 분실시 재발급되기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실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구학생증을 만들어 임시학생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이후 구학생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인문대학 : 26명 ▲법정대 : 4명 ▲경상대학 : 4명 ▲사범대 : 1명 ▲농대 : 1명 ▲해양대 : 1명 ▲자연대 : 2명 ▲공대 : 5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미 기자

수습기자 특차모집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며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성다’

- 대 상: 제대인 (학년·학번 제한없음, 대학원생도 가능)
- 부 문: 사회, 문화, 과학, 만화(켓)기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대학원동 (구학생회관) 3층 본사 편집국
- 전 령 : 11월 22일(금) 오후 6시 본사편집국
- 문의사항: 제대신문 편집국 ☎54-2278-9

제대신문사

백록학술상 30일 마감

지면안내

■제주도 상·제례의 절차와 신앙적 의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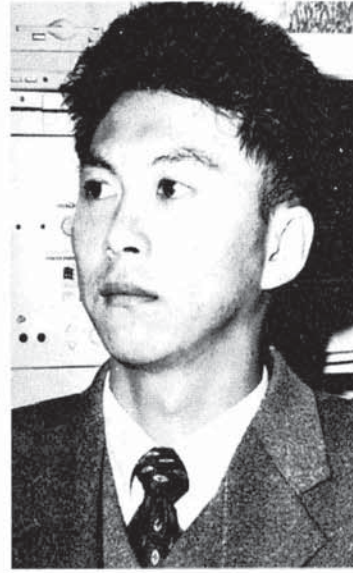
인간이 거쳐야 할 통과례 가운데 제주인의 상·제례 절차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의미를 밝히려한다.

■선거특집...4

차기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지상대담

□ 차기총학생회장 임후보자 지상대담

양쪽 모두 학생들이 여론수렴 사업전개 공약



청년시대 정: 강호진(행정 3) 부: 최문기(정보공 2)

◇일시-1996년 11월 7일 오후 6시
◇장소-제대신문사 편집국

◇사회·정리-김정임 기자
◇사진-강희황 기자

21세기 정: 양영준(경제 3) 부: 양승홍(화공 2)

▲임후보하게 된 동기는?

청년시대 총학생회장 후보=우리는 전환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전환기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대학공동체가 건설되어야 한다. 학우들과 멀어지지 않는, 학우들의 단단한 반석이 되는 공동체로서의 학생회를 꾸리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다.

청년시대 부학생회장 후보=늦게 대학에 입학해 학년대표와 과부회장을 하면서 대학분위기에 실망했다. 학생들은 학생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무관심하다. 따라서 공동체적 관심을 살려보고 싶었다. 학교측이 학생들의 목을 조이는 정책을 알리고 개선해 보고 싶다.

▲사업의 기본방향 및 중점사업은?

첫째, 학생회 10여년의 역사속에 계승과 혁신의 관점을 견지하며 자기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학우들과 함께하는 친구와 이웃이 되는 학생회를 꾸려갈 생각이다. 이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첫째 모니터요원을 구성해 모니터지를 발간하고 재공개할 예정이다. 둘째, 등투에서 얻어낸 학생회관의 LAN망과 PC통신을 통해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과의 학술적인 면을 부각시켜 학내 학소소임을 지원할 생각이다.

▲현 총학생회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번 등록금투쟁의 문제는 중앙운영위의 주체적 문제였지 총학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본다. 5년만에 처음으로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총운영위를 통해 등록금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려 노력한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학우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는 데 있다.

▲내년은 제4대 총장선거가 있는 해이다. 바라는 총장상은?

한 대학의 총장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총장선거를 모범을 학우들에게 공개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전에는 비공격적으로 했던 유세와 정책설명회도 공개해야 한다.

▲우리대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 대학당국, 학생, 학생회, 교수, 행정직원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학당국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애착심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돈만 내면 되는 소비자로 본다. 학생회는 공감대 형성이 안되고 있고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했으며 학원자주화 사업에 있어 전문적 간부의 육성에 소홀하다. 학생들은 도내 유일의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이 결여되고 자신속으로만 머물러 가는 모습이다.

▲강의평가제에 대한 입장은?

강의평가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강의평가제 실시에 대한 교수·학생간의 인식이 부족하고 내용공유가 안된다는 점이다. 이제 학부제와 최소전공인정학점제가 실시되면 강의평가를 통해 강의를 선택할 필요가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청년시대 총학생회는 강의평가자료집을 발간해 많은 학우들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는 데 용이도록 할 생각이다.

▲우리대학이 대학경쟁력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안은?

구성원들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놓고 사고하자.

제주도에 컨벤션센터와 국제회의장이 생기게 되면 이에 따른 비서직이나 행정직의 인

재를 배출할 수 있는 과에 대한 특성화가 필요하다.

▲학교정책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여론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학교측과의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93년 당시 계획했던 '대학발전협의회'는 허울뿐이었는데 대학당국을 자극하지 않는 한도내의 대자료를 구성해 대학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생회사업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총학생회측의 사업기획은 과거에 실시했던 기획에 대한 답습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수년간 써먹고 있어 학생들은 이를 식상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학우들과 총학생회와의 의사소통체계를 간소화하고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광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그의 주요공약은?

대학문화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목요문화제를 기획하고 있고 노년극장을 만드는 것을 공론화할 생각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설극장과 테마가 있는 영화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영상사업단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청년시대 총학생회 사업의 3대기치에 따른 8대과제는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민주적인 분을 총장으로 선출, 교수, 학생, 교직원, 제도의적 논의구조 마련, 실질적인 교육재정 확보투쟁, 합리적 예산편성, 장기적 계획에 의한 교육재정확보, 학내자치권의 확대실현, 실질적 취업대책마련, 도서관개화사업 등이 다.

▲임후보하게 된 동기는?

21세기 총학생회장 후보=총학생회는 8천 학우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제주대학교 학생대표기구이다. 그러나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총학생회의 사업들이 구태의연한 경우가 많다. 세상은 변화하는 데 학원은 변화가 없다. 기존의 '투쟁과 통일'이라는 주제에만 주력했던 학생회에서 제자리를 찾아 운동방향을 전환시켜 고민하는 학생회로서 진정한 총학생회의 모습을 찾고 있다.

21세기 부총학생회장 후보=대학생활을 통해 보고 느꼈던 것은 학생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사회가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가치관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학생회인가를 생각하고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업의 기본방향 및 중점사업은?

기본방향은 학생회를 조합적 대중조직으로 만들 계획이다. 조직원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첫째, 학생회 집행체제내에 여론조사국을 두어 학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되 대중추세주의에 물리치는 것을 것이다. 둘째, 학생회운영을 공개하겠다. 이의 하나로 상업공고를 규제한 학생회홍보지와 정보의 공유를 위한 총학자료실을 만들어 친구가 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다. 기존의 권력집중의 사업들을 분권화시키고 학생회 예산의 10%를 각 과학생회에 지원할 생각이다. '과의 날' 행사를 만들어 총학간부와 학우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1주일에 한 번은 마련하겠다.

▲현 총학생회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자주총학은 학생회를 이끌어가는 간부들이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았고 운영위원단의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용기와 과

감성'이 부족했다. 등록금투쟁과정에서 사발투쟁까지 하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보인 것은 칭찬할 만하다. 문제는 등록금투쟁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들이 과연 전체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백두관내에 LAN을 설치하고 총학생회 사무실의 책상을 교체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도서관의 도서관이다. 또한 가장 비판이 되는 부분은 대학당국이 학생안전화대책을 발표했을 때 아무런 입장표명조차 못하다가 이 안이 시행되고 나서야 뒷북을 치는 격으로 이제서야 결의대회를 하는 모습이다.

▲내년은 제4대 총장선거가 있는 해이다. 바라는 총장상은?

총장은 제주대학발전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독단적이지 않고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친구이자 이웃이 되는 총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학우들이 원하는 총장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를 찾아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지 서명을 받겠다.

▲우리대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 대학당국, 학생, 학생회, 교수, 행정직원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먼저 대학당국의 학사행정에 관한 한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나 이것이 모자라다. 대학의 3주체인 학우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학생회의 문제는 대학당국의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홍보위원회는 홍보위원들과 총학생회, 제대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총학은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시키고 스스로가 모교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강의평가제에 대한 입장은?

강의평가제란 교수의 자질평가와 더불어 학생이 그 강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강의는 사회변화에 따라 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1세기 총학생회는 교양과목선택에 있어서 구체적인 강의내용과 교수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교양교과목백서를 만들어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우리대학이 대학경쟁력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안은?

도내 유일의 4년제 국립종합대학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관광과 환경부문에 특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정책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여론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학생들의 여론을 어떻게 주도나갈 것인가는 여론조사를 통해 '대학자치협의회'를 구성해 총장선거시기에 총장후보들에게 이 안을 내놓아 협의할 생각이다.

▲학생회사업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체계를 간소화 하고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열린광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진행을 기존의 틀에 매달리지 않고 여론조사를 통해 학우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참여정신을 고취시키겠다.

▲그의 주요공약은?

외국어교육관은 시설은 훌륭하나 홍보가 미흡하고 학우들이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토록 유도하겠다. 또한 총학생회가 강가개설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학종합전문지 한국대학신문

"96 고객만족의 해"

“正論追求”

지구촌 곳곳에는 국가별로 대학종합전문지를 대표하는 정론지가 있습니다.

지난 88년 10월, 언론 자율화 조치이후 한국대학신문은 대학 전문매체의 불모지였던 국내에 대학종합전문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正論의 깃발을 내건지 어언 8년... 웅비하는 지성의 보루로 한국대학신문은 정론추구의 社稷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신문
TEL: 278-1105, FAX: 263-2589

정기구독 회원으로 모집한다.
신청방법 구독료: 1년=2만원, 2년=3만6천원, 3년=5만원.
예금주: (주)한국대학신문사 (계입은행 101-20-132601)
(국민은행 005-01-0425-705)
(기입은행 277-009776-04-016)

목 전: 구독사은품 증정, 본사행사시 우선취약
본사발행 각종 책자제공
전국대학관련 정보 송달과 제공 등
문의: 02-277-1100 FAX: 02-263-2583

총학생회 - '하나되기'



〈후보〉
정 박경미
부 고선영



아침 이슬 곁에 먹은 나뭇잎들도 형형색색
웃을 같이하고 무언가를 새로이 보여주고 느
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갈 때쯤이면 어김없이 변
화와 희망을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라 여학생들도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힘차
게 생활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학생
여러분 그리고 남학생 여러분, 지금 과연 여
성과 남성이 인간 해방을 향해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쪽이 앞서고 한쪽
이 뒤서는 것은 진정한 앞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쪽 짜리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반쪽이 합쳐져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힘은 온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진 힘을 발
휘했을 때 진정한 인간 해방이 실현되리라 생
각해 봅니다. 올 여름 성폭력 사건이 연일 보
도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범청학원 통일대학
전에 참가했던 우리 한총련 여학생들이 폭력
경찰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서 저희는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라 여학생 여러분, 이제는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이가 못한다면 내가 하겠다
는 마음으로 당당히 서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아라 여학생 그리고 남학생
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하나되기' 총여는 제대 여학생의
이해와 요구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
학생·남학생들의 그릇된 여성에 대한 인
식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여성관련 자료들
을 개발하고 서로간에 토론할 수 있는 자리마
련에 앞장 서겠습니다.

학내의 불평등하고 불편한 여성관련 요소
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총여는 4천 여학생들을 대표하고 여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생겼지만 지금까지와서
는 소수의 여학생들만을 위한 총여가 되어가
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소수만의 총여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총여가 되기 위해 여학생들이 있는 곳
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여러분들이 필
요로 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대의원회 - '한울'



〈후보〉
정 하승우
부 문성보



지금 우리는 가능성만이 전신된 선거철을 맞
아왔습니다. 세상에 대해 가진 비판적인 시각
을 바탕으로 내세웠지만 자신이 겨누는 칼날은
결코 예민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패배감으로 가득찬 학생회에 희망이라는 씨
앗을 뿌리고자 하였습니다.

신선한 발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13대 한울

대의원회 정후보로 임후보한 생물학과 3학년 하
승우입니다. 몸은 비록 왜소하지만 푸른 꿈이 있
기에 머리칼은 비록 적지만 엉뚱한 발상이 다음
과 같은 학생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확
신이 있기에 당당히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첫째, 학생회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학생회
학술사업 지원강화, 동아리 행사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예산배분시 백분율을 설정하여 적절히 이
투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천여원의 이
수로 얻어진 스폰서를 공개하고 각종 예산 사용
내역을 감사자료집을 통해 여러분에게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책은 많은데 정작 볼 책이 없는 도서관
에 대하여 과, 학년, 동아리에서 일괄적으로 필
요한 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공기 순환 장
치까지 마련하여 쾌적한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누구나가 고민하고 있는 취업 문제의
경우 취업정보부를 각 학생회에 설치하도록 요
구하여 보다 정확한 취업 정보를 얻게끔 하겠습
니다. 뿐만 아니라 적성 대비 모의 시험 및 면접
대비 모의 시험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기초 모든 정책을 공개함으로써 함께
하는 학생회를 만들고 이에 따라 철저한 공약 감
시 및 비판이 학생회에 가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학부제에 관해서 총학내에 학부제를
책임지는 부서를 신설하고 학부제 진행 상황
을 학우들에게 공개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하겠습
니다. 그리고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학우들이 학부제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여섯째, 등투 협상시 대의원들의 요구안을 수
렴하여 적극 반영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안전조
로 등투문제를 상정하고 동시에 등투 진행 상황
및 기성회비 사용 내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에 있지 못하고 항상 떠돌아다니며 학
생회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학생회를
건국수배합니다.

대의원회 - '자유의지'



〈후보〉
정 이창현
부 양우선



학생회는 학우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우들
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자치기구입니다.
하지만 과연 학생회가 학우들의 이해를 얼마
만큼 대변 했을까요?

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단체로서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고, 대
의원은 집행기구인 학생회를 감시하는 기구로
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자치기구
역시 자신들의 역할숙에서 강화되어야 하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대의원회를 강화하려면 우선 상임위원회의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상임

위원회는 4개의 특별기구(졸업준비위원회, 회
칙개정위원회, 감사위원회, 도서관자치위원
회)가 있는데 이 구성원들을 강화시켜야 한다
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회계와 사업 감사 결과는
학우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낼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재무감사에 있어서는 회계학
과와 연계를 하면서, 그리고 사업감사에 있어
서는 각 자치단체 감사에 알맞는 학우를 선정
감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문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감사
의 투명성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감사에 학
우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감사과정의 공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의원회의는 회칙개정 의결권이 있
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칙개정에 대한 발의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칙개정위원회를 법학
과 학우들과 연계 불공정한 회칙을 개정하면
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문폐쇄, 잔류인원에 대한 허가증,
즉 학생생활지도지침에 대해 알고 계실것입
니다. 우리는 학생생활지도지침에 대하여 토
론회를 개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우
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할것입니다.

다섯째, 제주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자존심 있는 제주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강의
실 교훈부착 등과 더불어 배지달기 운동을 전
개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유의지 대의원회는 자신들의 잘못
뿐만 아니라, 유(you)의 잘못 하나하나까지도,
의심스러운점이 있으면 지적하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 '시대정신'



〈후보〉
정 허정욱
부 강상균



전환의 시대, 도전하는 지성, 97 문화공동
체 '시대정신' 동아리 연합회 건설을 위해 출
마한 기호 1번 정 허정욱, 새로운 모든 것을
위해 저항하는 세대, 4500 동아리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몇년 전부터 변화라는 말이 유
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대학문화는 자신의 건강성을 잃어
가고 있으며 소비문화에 자신의 자리를 비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대정신은 대학문화를

살리기 위한 열정으로 응대하지는 않지만 차
분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연과 동아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동연은 점점 고립되어 망망대해를 떠도는 조
각배 마냥 표류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연이 왜 이러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분명히 알
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동연이 불실실해서
도 아니고, 정치성을 띠는 이유만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동연의 사업
이 8개 분과, 67개 동아리들의 삶의 방식에
기반을 두지 않았던 것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시대정신 동아리 연합회는 바로 이점
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
러기에 97시대정신 동아리 연합회는 여러분
들과 함께 동연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 먼저
동아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하
게 인식하고 동아리인의 삶을 깊이 고민하는
차분함을 갖겠습니다.

또한 각 동아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
양한 사업의 모색과 사업에 있어서 풍부한 프
로그래밍 개발을 통해 능동적으로 활동 할 생각입
니다.

4500 동아리 여러분! 그 누구도 고여있는
물을 갈아주지는 않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웅
덩이가 도도하게 흐르는 큰 물줄기와 만날 수
있게 물꼬를 틀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임을 잊지 마십시오.

동아리연합회 - '우리시대'



〈후보〉
정 홍정미
부 고을선



인류의 역사는 그 시대에 부응되는 새로
운 사상을 계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
다면 지금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할 이 시대
에 우리의 사상은 무엇이 돼야 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
람의 가장 근본적 특성을 자주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특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자
기 운명의 주인으로 온갖 구속을 넘어서지 않
고 자유롭게 살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자주
성은 이해와 요구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집
단을 이루고 동아리를 형성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동아리인의 요구이며, 끊임
없이 창조적으로 변화 발전하려는 모습입
니다.

우리는 97년 우리시대 동아리연합회의 모
습을 찾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만 합니다. 모든 역사는 계승과 혁신의 관
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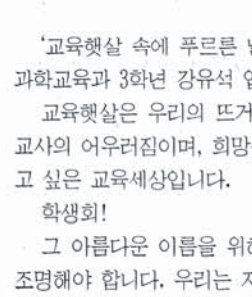
지난 12년간의 동아리연합회는 8천 여
명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왔고, 조직적인 측면
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합리적인 조직체
를 만들었으며 우리의 활동공간인 동아리방도 마련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체의 활
동성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연과 동
아리의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어 함께 하는 사
업을 펼쳐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대
동아리연합회는 이러한 오류들을 혁신하여 4500
천원 동아리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학사회에도 개인주의적인 의
식이 팽배해져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로부터' 각성하고 나
로부터 시작한다는 주체의 정신을 확립해 내서서
우리의 공동체 대학문화를 일구어내겠습니다. 운
명을 함께 하여 힘이 솟는 대학의 문화, 그 공동체
문화를 열정의 삶, 청년 공동체 '우리시대'와 함
께 찾아 갑시다.

사범대 학생회 - '97사범대학 제모습찾기'



〈후보〉
정 강유석
부 김현기



‘교육했살’ 속에 푸르른 날개짓으로 희망을 말한다’ 97 사범대학 제모습찾기 학생회 정후보자
과학교육과 3학년 강유석입니다.

교육했살은 우리의 뜨거운 교육열정이며 푸른날개짓은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과 예비
교사의 어우러짐이며, 희망은 97 사범대학 제모습찾기 학생회가 사범대생들과 함께 만들어나가
고 있는 교육새상입니다.

학생회!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우리는 지나간 과거, 그 학생회 역사인식에서부터 우리는 현재를
조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점에서 서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합
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신을 굶고 새로운 대안의 길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 모습찾기 학생회는
첫째, 사범대 제모습찾기운동을 제안하고 일상사업에서 사범대다운 사업창조, 교육모형의
활성화, 제3차 교육개혁안 바로보기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둘째, 학문영역에 대한 재인식에서부터 ‘대안교육 운동’을 제안합니다. 신입생학교-미리 서
보는 교단, 미리 체험하는 대학, 지역열린학교, 교육강화-책상에 없는 교육, 거꾸로 읽는 교육
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활공동체로서의 학생회를 구축, 통치 대상에서 자치, 종속에서 연대, 그리고 참여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창사20주년
고객만족의해

'97 Cyber Job Fair in Korea

그리고
여기에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다

PC통신/인터넷채용박람회

- 일 시 : 1996년 10월 1일 ~ 1996년 12월 25일
- 장 소 : PC통신(천리안), 인터넷(<http://unicoop.co.kr>)
- 참가 대상 : 국내외 대학원/대학/전문대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 참가 기업 : 국내외 주요기업사 및 업종별 초우량기업
- 이용 방법 :
 - PC통신 이용시 : 천리안 접속후 'go cjr' 입력
 - 'CJR'는 PC와 Modem만 있으면 천리안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guest로 접속후 'go cjr' 입력
 -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 <http://unicoop.co.kr>로 접속
- 문의처 : (주)엘리트뱅크 CJF담당자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1-7 봉우빌딩 2층
TEL: (02)276-1100, FAX: (02)263-2586
- 주 최 : **주엘리트뱅크 DAOM**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대학취업/부직실(과)장협의회
- 후 원 : 한국대학신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학문화그룹

대학문화그룹
(주)한국대학신문사 / (주)엘리트뱅크 / (주)우아에이전시 / (주)대학물류 / UNITE NEWS VISION / 대학CATV / Unicoop Data Service / 한국유니콤추진위원회

□ 기로에 놓인 교양교육 - 새 교양과정 편성을 보고

교양강좌 축소 ...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서울대, 96학년도부터 교양강좌수 오히려 늘려

김현돈 독문과 조교수

학부제 도입과 복수전공, 최소전공 인정 학제제 등을 둘러싸고 지금 전국의 모든 대학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대학 내부에서부터 자율적인 토론을 거쳐 나온 것이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자율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 대학은 자유로운 곳이어야 한다. 자유 그 자체여야 한다. 학문의 존엄성과 순수성을 위하여 대학은 그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모든 대학은 지금까지 일방적인 관의 하향식 조처에 대해 대학의 자존을 세우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갖지 못한 채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 비굴함을 보여 왔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과연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인간형을 길러내는 데 적합한 것인지 그 근본 취지부터 다시 물어야 할 것인가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여건과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대해 냉정히 반성했어야 했다.

더군다나 교과과정 편성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권과 관련되며 교수의 입장에서 교수권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대학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시금석이다. 우리 대학이 97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최소전공인정 학제제'와 이에 따른 교양과정 개편안은 우리 대학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것인지, 학습권과 교수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냉철히 살펴 보아야 하겠다.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선 전전

한 상식과 최소한의 문제의식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에선 새삼 이를 재론한다는 자체가 진부한 일이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이래 대학교육의 역사는 곧 교양교육(liberal arts, 자유학예)의 역사였다.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이 대학이 아니라 교양인을 양성하는 곳이 대학이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어서는 안될 대학의 근본 이념이다.

교양을 갖춘다는 것은 세계 속에서 나를 성찰하는 것이며 의미있고 가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물에 대한 심미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교양을 뜻하는 독일어 Bildung은 만든다는 뜻을 가진 bilden의 명사형이다. 즉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양이라는 말이다. 교양의 중요성과 본질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교양교육을 어떤 교과 과정에 맞추어 어떻게 시행하느냐를 보면 그 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10월 28일자 제대신문에 따르면 8개 영역 2백 34과목으로 편성된 기존의 교양교육 교과목이 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될 새 교과목에는 6개 영역 1백 20과목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최소전공인정 학제제 시행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최소전공인정 학제제의 도입배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이수 선택기회를 확대해 복수전공이 가능하도록 전공인정학점을 축소인정한다는 것이다. 언뜻 합리적인 것 같은 이 제도가 교양교육을 희생시켜가면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극대화시켜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인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런지는 아무래

도 회의적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인력'이 머리와 손만 비대하고 가슴은 텅빈 무미건조한 기술인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인물이 다가올 세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96학년도 신입생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전공 중심적으로 구성된 기존의 교과 과정에 서 탈피해 졸업학점에서 상대적으로 교양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현대 학문의 새로운 관심 영역을 소개하는 교과목, 주제 중심적이고 학제적인 성격의 교과목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교양 필수 과목을 없애고 제1영역 '국어와 작문'을 비롯해 모두 8개 영역으로 분화된 영역별 교양과목 가운데 제3영역 '문학과 예술'은 94년도 1학기에 36개 강좌가 96년 1학기엔 50개 강좌로 늘었고 제4영역 '역사와 철학'은 63개에서 72개로, 제7영역 기초과학은 39개에서 53개로 각각 늘어 94년도 1학기에 총 317개 강좌가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시행년도인 96년도 1학기엔 총 361개 강좌로 늘어났다. 대학의 규모에서 우리와 직접적인 상대비교는 곤란하겠지만 교양교육의 인식도는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마련한 교양과정 이수 원칙을 보면, 교양 필수과목 9학점(영어, 전산학, 문장작법)을 포함해 6학점 이내의 계열 기초과목과 학문관심과목 등 3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필수과목을 9학점이나 지정하여 그만큼 교양 선택의 폭이 줄었다는데다가 학문관심과목은 그 개념상에 혼란의 소지

가 많아 실제 각 학과에선 6개 영역별 교양교과목 가운데 전공과 관련이 많은 특정 교과목들만 편중하여 지정함으로써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차별성이 모호하고 명실상부한 교양과목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엔 전공과목이 축소됨에 따른 각 학과 교수들의 심리적 '위기가감'도 크게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제 밥그릇 챙기기'도 힘든데 교양이 다 뺄냐는 심이다. 학교측은 이렇게 하여 접수된 1백 89개 교과목을 강의실 부족 등의 이유로 1백 20과목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니 누가 봐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편성 원칙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각 학과의 교양과목에 대한 단일한 인식, 편의주의적인 학사행정이 결합하여 새 교과과정은 교양과정에 관한 한 유래 없는 최악의 교과과정이 될 전망이다.

교양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이러한 조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들의 교육권을 공히 제한하고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 당국자들과 교수, 학생 등 대학인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학이 대외적으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데 무엇이 근본적인 일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존폐의 기로에 놓인 교양교육, 이에 대한 솔직한 토론과 9학점을 넘어서는 필수교양 선택의 폭이 줄었다는데다가 학문관심과목은 그 개념상에 혼란의 소지

無論有說

우리교육 과연 학생들의 수학적능력차 고려하고 있나

획일화하면 먼저 전체주의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어떠한 정치체제를 말하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우리의 학원 사회에서 부딪히는 일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리잡고 있는 획일적 현상을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나는 가끔씩은 학교 교수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점은 왜 그날의 점심 메뉴는 한 가지밖에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가 하는 것이다. 하다 못해 교문 밖에 초라하게 서 있는 트럭 포장마차에서도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데 어찌해서 우리 교수들은 그날 그날 정해진 음식만을 먹기를 강요당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해 본 것은 군대 생활 때 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마도 가족 사육장에서 먹이를 집단으로 먹일 때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민주 사회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이며, 더군다나 이 학원 사회는 우리의 민주 사회를 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감당하는 지식인의 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 교수식당은 아직도 이 획일적 먹거



이
기
석

리 터를 고수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사실 알고보면 식당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교육이 과연 모든 이들의 개별적 재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회나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 방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대학도 이제 대략 60여개 정도의 서로 다른 학과(부)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 학과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이제의 제주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점차로 육지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연 이들에 대해서 — 비록 아직은 소수이지만 — 충분한 배려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커리큘럼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학생들의 수학 능력의 차를 고려해서 운영

되는 과목이 있는지 자문해 본다. 또 2천5백여명의 신입생 모두에게 똑같은 교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외국어를 가르쳐서 과연 학습효과가 있는지도 자문해 본다.

최소전공인정학점제도 그렇다. 이 제도가 훌륭한 제도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왜 학교 당국은 무리하게 강행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자의적으로 정해놓은 틀 속에 성격을 달리는 거의 모든 단과대학, 거의 모든 학과의 커리큘럼의 내용을 담으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획일주의는 기능주의이며, 힘의 논리이며, 물량주의이다. 과거 우리의 개발 독재 시대 때 소수의 독소리가 항상 다수의 불도저식 횡포에 목살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와 유사한 방식의 의사 결정 및 학사운영은 교육의 장인 학원사회에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저물어 가는 이 가을 아래를 구석구석마다 하늘하늘 넘실대던 저녁의 풍경들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 슬프다. 어느 날 아침 영문도 모른 채 획일적으로 처형당한 것 같아 가슴이 아플 뿐이다. 획일은 교육이 아니다. 〈영어영문학과 교수〉

공·최소전공제와 연계시키다 보니 2학년에서 전공선택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농과대 강순선(농화학과 교수) 학장은 "전공의 선택은 학생자율에 맡겨 전공별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특정전공에 몰릴 경우 우리대학의 현 교육재만 여건상 그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대학내에서 학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97학년도부터 복수전공과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따라 1~2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해양생선과학부의 문승일 학우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전공을 듣게 되면 당연히 학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것 같다"면서 "전공선택을 눈앞에 두고 아직까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복수전공, 최소전공이니 말은 들었지만 확실히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해 학부과정의 이해도가 낮아 전공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대 등을 비롯, 우리대학과 비슷한 시기에 학부제를 도입한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등은 12학년 시기에 다양한 교양과목과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게 한 후 3학년에서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표〉

2학년때 전공을 선택하는 대학:
부산대, 충남대, 경성대, 제주대
3학년때 전공을 선택하는 대학:
경북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표〉 각 대학 전공선택시기

대학당국은 특정전공에 다수가 몰릴 경우 성적순으로 제한한다는 방침보다는 학부생들이 전공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각 전공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히고 전공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많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도 실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전공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선행해야 한다. 또한 학부생들도 친구들끼리 강남가듯이 전공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 교수님과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충분히 전공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은 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때 비로소 학부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이진 기자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우리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취지로 97학년도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실시한다.

최소전공인정학점제란 전공이수학점을 낮추어 학생들이 복수전공(한 학생이 학부과정에서 전공을 2~3개 이상 이수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대학의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시행계획 기본원칙에 따르면 졸업소요 학점은 1백40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택한 기본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공통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침에 의하면 전공공통과목은 각 학과에서는 9학점 이내, 각 학부에서는 12학점 이내로 지정하고 전공과목인 경우는 최소전공인정학점을 36학점으로 하고 있으며,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우들은 전공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 혹은 학부에서 지정한 계열기초과목과 전공공통과목을 이수하고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부제를 알아보다 - ③우리대학 진행상황

전공선택 최대인원 56명으로 제한

설명회 개최...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학과간의 벽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탐구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우리대학에서는 96학년도부터 일부학과를 대상으로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농과대는 농화학·원예학과를 원예생명과학부로, 해양대는 증식·어업학과를 해양생선과학부로 각각 통합, 올해부터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해양대의 해양생물학과가 해양생선과학부로 편입되는 한편

공과대에서도 기계·에너지공학파를 기계·에너지생선과학부로, 통신·정보공학파를 통신·정보공학부로, 전자·전기공학파를 전기·전자공학부로 각각 통합하여 3개의 학부를 추가, 신설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대학은 내년에 모두 5개학부가 생기게 된다.

올해 학부로 입학한 신입생들은 2학년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대학당국에서는 지난 10월경 한 전공에 대한 제한인원 등 전공선택 방침을 마련

했다. 교무과에 따르면 "최소한 과거 기계·에너지생선과학부, 통신·정보공학파를 통신·정보공학부로, 전자·전기공학파를 전기·전자공학부로 각각 통합하여 3개의 학부를 추가, 신설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대학은 내년에 모두 5개학부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당국의 방침은 1~2학년 동안 폭넓은 교양지식을

습득하고 전공탐색의 기회를 제공한 후 3학년에서 전공선택 기회를 늘린다는 학부제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학생들을 또다시 성적경쟁에 내모는 것에 다름아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무과에서는 "작년 학부제 도입시 명확하게 3학년에서 전공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세워놓지는 않았다. 1년동안 타대학의 사례를 검토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복수전

알림

양호실에서는 '96. 10. 16(수) 실시한 2차 간염예방 접종에 이어 3차 간염 예방 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3차 간염예방접종일시 : '96. 11. 14(목) 10:00-16:00
나.접종장소 : 본부 후생과 양호실
다.접종대상 : 간염예방 기초 접종 신청자로 1,2차 간염예방 접종을 받은자
라.준비사항 : 간염예방 접종료 (5,500원) 지참
마.자세한 사항은 양호실 (54-2059)로 문의 바람.

인터넷실 운영 안내

전자계산소에서는 최초의 가상 박람회인 정보엑스포인 '96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문명의 형태로 등장한 인터넷을 학생 및 일반인에게 소개하고 다가오는 정보시대를 미리 체험케 한다는 뜻에서 지난 7월부터 인터넷실을 개방하여 왔으며, 10월중에는 PC를 추가 확보하고 다음과 같이 인터넷실을 개방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설치시스템 : 개인용 컴퓨터(팬티엄) 20대
▶개방 기간 : 1996년 7월 1일 ~ 12월 31일
▶이용 시간 : 10:00 ~ 17:00(일요일, 공휴일 제외)
▶이용 대상 : 제한없음(단, 교육시간에는 사용제한)
※ 단 수용인원은 2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주대학교전자계산소장



한라자동차학원

▲아라동, 제주대 통학로에 위치/편리한 교통
▲빠르고 친절한 운전교습
▲필기시험 강의
▲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 2동 1320 (제주여고 동쪽)

☎ 55-9900
56-7755

第 15 回

我羅山水會

濟州大學校教職員同人好
連絡處(總務) : 五五四一(0773)

水石展

期 間 : 一九九六年十一月十四 ~ 十六日(三日間)
場 所 : 朝興銀行濟州支店二層(五五七一〇〇)
時 間 : 午前九時 ~ 午後七時

■ 기획·와 금서인가 ④ 제5공화국

5공 말 3백6종 판매금지

노동운동·마르크스주의 관련 서적 대부분

80년 1백72종의 정치간행물과 6백17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탄생한 제5공화국 정부의 출판정책도 과거의 정권처럼 압수·수색을 통한 금서조치와 자율화에 의한 해금의 반복으로 점철 된다.

1982년 2월22일 정부는 88올림픽의 서울개회 결정과 자율화조치 방안의 일환으로 6여국의 금지곡을 주는 한편 『갈 마르크스-그의 생애, 그의 시대』 등 공산주의의 연구적에 대한 출판물을 허용하였다. 이때 해금된 서적은 현대 공산주의의 역사, 사상, 이론 등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분석을 시도한 이념서와 연구비판서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주변정세에 적응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1985년2월12일 제12대 대통령선거 실시 이후 거대야당 출현과 재야 세력의 성장, 학원사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의 여러 요인들은 출판물에 대한 정부의 경직된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1985년 5월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기점으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불온책자에 대한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이라는 출판계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구성된다. 이 대책반은 문공부, 청와대, 안기부, 치안본부, 검찰, 보안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에 내세운 목적은 이념도서의 판매방 차단, 좌익사상을 비판한 도서의 보급지원, 부실, 문체 출판사의 정리 등이었다.

문공부는 이 조치의 배경을 "그동안 자율과 개방의 차원에서 반국가적 반사회적 불온·불법간행물들의 제작,

판매행위를 자제하도록 부단히 행정지도와 설득을 펴왔다"고 밝히고 "불법, 불온 간행물의 출판과 판매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앞으로 다음과 같은 간행물 및 유인물은 계속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공부가 밝힌 단속대상은 ① 반국가단체와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적대시 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동조, 찬양하는 내용 ② 공주의 혁명이론에 편승하여 사회폭력투쟁과 노동투쟁을 선동, 고무하는 내용 ③ 좌경불온 사상을 고취시키는 외국사상서적의 불법 반입 및 이를 복사 제작한 지하 간행물과 유인물 ④현실을 왜곡, 비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국가 사회의 안정질서를 해치는 서적과 유인물 등이다.

85년의 이 조치에 의거해 당국이 압수한 이념서적은 3백6종으로 확대되었다. 이 당시 압수한 이념서적은 2백33종으로 대체로 정치경제학 이론이나 철학, 노동운동 및 마르크스주의를 다루거나 현실을 비판한 책들이다. 이념서적을 다시 분야별로 나누면 철학분야는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 자본주의의 문제점, 인간소외와 휴머니즘, 사회사상사, 사물에 대한 변증법적 관점 등을 다룬 서적이다. 대표적으로 『철학의 기초이론』(편집부, 백산서당), 『사회사상개론』(김수길역, 청사), 『김대중 옥중서신』(김대중, 청사), 『소의된 인간』(황대현 역, 이삭) 등이 있다.

역사분야에는 민족적 관점에서 기술된 근대사구시민혁명, 중국대륙의 혁명고 그 후의 상황,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 일제하 좌파민주주의 계열의 활동 등을 다룬 도서와 연구물 등이 다. 대표적으로 『근대혁명사론』(김현일 역, 풀빛), 『5·4운동의 사상사』(김정화 역, 일월서각), 『분단전후의 현대사』(편집부, 일월서각) 등이 있다.

정치분야의 금서는 유신시대의 권력핵심과 관련된 서적, 정치인의 저서 등이다. 그 예로 『비록 박정희 시대』(이상우, 중앙문화), 『JP와 HR』(이영석, 원음), 『부끄러운 이야기』(박찬중, 일월서각), 『김대중 옥중서신』(김대중, 청사) 등이 있다.

경제분야의 금서는 자본주의의 경제체제, 제3세계 경제구조의 모순, 노동운동, 민족경제적 시각에서 조망한 한국경제를 다룬 서적 등이다. 그 예로 『자본주의 이행논쟁』(동 외, 동녘), 『독점자본』(최희선 역, 한울), 『경제학개론』(안병직 편역, 풀빛) 등이다. 문학분야의 금서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묘사하고 민주의 고통받는 삶을 강조한 작품으로 근조자 편에 선 시와 소설, 평론 및 근조자의 작품집, 제3세계의 저항문학, 소외된 계층의 삶과 어두운 현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책 등이다. 대표적인 예로 『민중시대의 문학』(염무웅, 창비사), 『일하는 청년의 세계』(편집부, 인간사), 『피의 꽃잎』(김종철 역, 창비사) 등이다.

이외에 구조적 시각의 이념, 계급, 변혁과 한국사회의 현실문제를 다룬 사회분야 서적, 급진적 여성해방을 다룬 책, 종교적 차원에 앞서 사회적, 역사적 차원의 구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놀린 자를 위한 종교가 되어야 함을 역사적으로 밝힌 종교분야의 서적 등이다.

이러한 출판억제정책은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다시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런 분위기는 10월에 정부가 '출판활성화조치' 발표, 판권 중용도서 해제, 납본필증 즉시 교부, 출판사 등록개방 등으로 이어졌다. 이 조치에 의하여 1977년부터 판권되어 온 6백50종의 도서중 4백31종을 판매금지 중용대상에서 해제하고 1백81종은 계속 판금, 38종은 유보돼 모두 2백19종의 도서를 금서로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한된 해금조치는 여러 사법으로부터 다시 반발을 샀다. 해금된 4백31종은 당국이 "공산주의를 고무·찬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순수이론서적"으로 『러시아 사상사』, 『마르크스나 사르트르나』, 『모택동 주의의 미래』 등과 유신시대를 비판한 서적으로 『유신쿠데타』, 『유신공화국의 몰락』 그리고 5.18을 소재로 다룬 『5월』, 『광주의 넘 박관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이 있다. 이밖에 북한 관련 서적으로 『북한 김일성 왕조비사』, 『북한 기행』, 『이것이 북한이다』와 노동 관계 서적으로 『노동운동론 연구』 등의 금서가 해금조치 되었다.

그러나 월북 또는 재북작가들의 작품은 작가연구에 한해서만 해금조치되고 작품은 여전히 금서로 묶인 채 '계속검토'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5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6공화국이 들어서고 지난 93년도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국가 보안법은 계속 존속되고, 금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김한길 명예기자

□ 송성대 교수 저 『濟州人의 海民精神』

해민정신, 제주인 정신문화의 토양

평민민주주의 일찍부터 싹터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삼무정신의 형성동인과 변용과정을 연구해 온 송성대(사회교육과 지리교육 전공)교수가 저서 『제주인의 해민정신』을 도서출판 '제주문화'를 통해 펴냈다.

이 책은 제주인의 정신문화를 지리학적 세계관을 갖고 쓰여진 전문교양서로서 종래의 제주에 대한 단편적 정보차원을 벗어나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지식 체계가 될 수 있는 지적이면서도 인간주의적 정신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이를 위해 송성대 교수는 3백편에

가까운 서적과 논문을 참조해 글을 썼는데 소문형태의 글을 교양서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 독자들은 쉽게 읽을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균분상속제·30세대 아파트 문화 그리고 그 근저사상인 개체적 대동(大同)주의는 바로 제주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온 정신문화임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인의 정신문화에는 시공을 초월해서 인류가 공유할 만한 너무나 인간주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균형된 삶의 이념들이 요소요소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정신을 낳게 한 관련문



화, 즉 자연과 인간이 드라마틱하게 어우러진 유니크한 섬의 문화를 갖고 있는게 바로 '제주'임을 직시하고 있다.

송교수는 제주인들에게는 저 넓은 세상을 향하여 만든 개체적 대동주의로 설명되는 해민정신을 갖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즉 개인의 능력에 의해 생산량이 극히 좌우되는 해민(海民: 海南과 浦作人)의 해산활동이 이에 더해지면서 제주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그러면서도 공경하고 건강한 경쟁의 문화가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까지 한반도에서 불식되지 않은 족장문화의 하나인 천민민주주의의 문화가 존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주는 자존적 경쟁의 문화를 가져 평민민주주의가 일찍부터 싹터왔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책은 △제1장 정신문화 담론 △제2장 삼무정신(三無精神)인 가 △제3장 석다(石多), 여다(女多) 그리고 도덕군자를 △제4장 '영동할망'이 낳은 대문무(大門無)의 문화 △제5장 지역정신의 시의성(時宜性) △제6장 글로벌(Globalization)시대의 해민정신 등으로 구성됐다.

서준희기자

□ 자주총학에 보내는 고인

“오류를 반복하지 말자”

어려운 상황일수록 최소한의 신뢰지켜야

학생회는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학생회는 누구의 조직인가? 아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가?

나는 이번 '97학년도 총학생회 선거를 바라보면서 위의 질문을 학생회에 던져본다. 학생회는 전체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나가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학생회는 어느 일개인의 소유물일 수는 없다. 그렇기에 학생회는 전체 학우 대중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이 존재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학우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는 그것은 여러 학우들에게 기본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을 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올한해 총학생회의 사업을 지켜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의 총학생회가 전체 학우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나 보여주고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에 의하면 제45조 1항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권위에는 총운영위에 호선하여 그 업무와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95조(보결선거) 1항에 의하면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결위되는 15일 이내에 보결선거를 실시한다.(단, 전임기간이 150일 이내일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에서의 문

제점은, 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구속되어 전임기간이 150일 이상 남아있을 때 불구하고 현 총학생회에서는 재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것과, 여기에서 한술 더 떠 회칙 제45조 1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총학생회장단의 결위시 권한대행을 총운영위 소집을 통해 선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사정이 어렵다 보니 그럴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가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총학생회는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신뢰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구멍이 담 넘어 가듯 은근슬쩍 이반일을 넘겨 버린 듯한 인상을 지울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전체 학우들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8천 아라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야 하는 총학생회의 역할장기이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현 총학생회는 늦은 시점이나마 분명히 자기반성을 해야한다.

나는 지난 며칠전 국문학과와 모학우가 제기했던 글중에서 총운영위에 대한 중앙운영위의 쿠데타라는 대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전체학생회



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학우의 입에서 '쿠데타'란 단어와 '전원사퇴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전체학생회는 기본적인 신뢰조차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 학우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회의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우들이 학생회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현실한탄만 할것이 아니라 먼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의 총학생회가 학우들에게서 최소한의 신뢰와 더불어 권위를 회복하는 절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총련 사태이후 학생지도자침이 나온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학생지도자침은 '지성의 마지막 보루'라는 학생사회의 다양성과 자치권을 짓밟는, 한마디로 과거 군부독재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학교측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지금의 자주총학생회에 묻는다. '처음 학생지도자침이 나왔을 때 지금의 총학생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어느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지지활동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조차 못했다?' 라는 전체 학우들의 항변을 지금의 총학생회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8천아라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한다는 총학생회가 학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역할을 방해해 버린다면 과연 총학생회의 존립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는가?

나는 현실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야 할 일 중에서도 적절한 시기가 있고 부적절한 시기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의 총학생회가 벌이고 있는 '민족자주 수호운동'을 바라보며 나는 해야 할 일이기는 하나 과연 지금의 시기에서 적절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와 학교측의 '학생지도자침'에 대응하는 '학생자치권 수호운동'이지 결코 '민족자주 수호운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사회내의 다양성과 자치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의 총학생회가 해나가고 있는 '민족자주 수호 운동'이 과연 전체학우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또다시 연례행사가 벌어졌다. 각 단과대별로 학생회간부들의 사퇴공고나 나붙기 시작했으며 모단과대 학생회의 경우에는 후보자 포스터 하나 붙여 줄 학생회 임원이 없어서 학생회장 혼자서 외롭게 돌아 다니는 모습 또한 보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해본다. '왜 사퇴하는 학생회 간부들이 동일한 시기에, 그것도 동일한 이유(일신상의 이유로...)로 조기사퇴를 하고 있는가? 왜 사퇴하는가' 라는 질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회 자체가 유아무야 넘어가버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한 결코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불신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자기 역할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참여를 비탈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사퇴한 학생회 임원들의 거취에 대해서 학생회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보였을 때 가능하지 결코 폐쇄된 구조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년도 총학생회를 누가 운영해 나가든지 간에 올해 총학생회가 노정했던 오류는 결코 반복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내 바람이다.

한승건 (해당 3)

공 고

'96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시험기간

- 가. 본시험 : 1996. 12. 2(월) ~ 12. 7(토), (6일간)
나. 추가시험 : 1996. 12. 10(화) ~ 12. 12(목), (3일간)

2. 시험시간표(교양·교직교과목)

“별첨” 게시(단, 전공교과목은 각 대학별로 게시)

3. 수험생유의사항

- 가. 시험기간에는 학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나.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학칙 및 학사관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다. 시험실에는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 외에는 일체 휴대할 수 없다.
라. 시험기간 중복과 공결 및 공상중인 학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하지 못할 학생은 시험연기원(사유서 첨부)을 학과장(지도교수) 경유 시험기간 개시 전일까지 소속대학 교학부장(교무담당)에게 제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마. 교양선택 교과목 응시자인 경우 과필강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강의시간별, 학년별, 학과별, 대학별로 구분하여 고사실을 배정하였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고사실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1996. 11

제 주 대 학 교 총 장

'96년도 예비군 교육일정 공고

'96년도 우리대학교 직장예비군 일반(기본)·보충교육 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동기간중 대상자는 전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훈련명 : '96년도 일반(기본)·보충 교육훈련
2. 교육기간 : '96. 12. 9 - 10(2일간)
3. 교육장소 : 해병 92대대(제주시 연동 소재)
4. 교육대상 :
 - '96년도 일반(기본) 교육 미이수자
 - '96년도 2학기 신규편성자(복학생·제일학생·신규 교직원)
 - 지역동대 편성시 '94, '95년도 교육 시간 미달자(소집점검 포함)
5. 교육일정

일 자	교 육 대 상 자	시 간	비 고
'96. 12. 9	8시간 미이수자	8	기본교육 및 소집점검 미이수자
'96. 12. 10	8시간이상 초과자	8	'94, '95년도 시간 미달자

6. 유의사항

- 가. '96년 2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불참시 졸업후 지역·지방부대 편성후 재보충 가산 실시됨)
나. 지역동대 교육훈련 불참으로 통보된 자는,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함.
(불참후 고발처리 및 교육시간 가산됨)

7. 기 타

- 가. 교육당일 08:00까지 교육장에 집결할 것.(지각자는 추가시간이 가산됨)
나. 중식은 개인별 지참할 것.
다. 교부된 소집통지서는 필히 지참할 것.
라. 복장 :
 - 입소시 : 예비군복(모자, 훈련복, 명찰, 혁대등 규정된 복장 갖추 것) ※ 위반자는 교육 불허 및 교육시간 가산됨
 - 퇴소시 : 사복 착용(입소시 사복을 지참할 것.)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여 교육장 입소시 제출하고 (미소지자 입소 불허) 교육종료후 회수할 것.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연대(구대 54-2288, 2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11

제 주 대 학 교 총 장